

해외 CM 기술자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확대 방안



손보식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sson@nsu.ac.kr

김강욱 한국CM협회 정책사업본부 차장, kwkim@cmak.or.kr

1. 시작하며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또는 해외 발주자가 고용하기를 원하는 건설사업관리(CM) 전문인력은 초고층빌딩, 데이터센터, 특수교량, 해저터널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공정관리, 원가관리, 설계관리, 리스크 관리, 계약·클레임 관리 등 각 분야별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인력은 크게 토목·건축·기계·조경 등 직무분야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전문업무 분야별 구분이 없이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건설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CM수행 지침에 해당하는 CM지식체계(CM Book of Knowledge)가 이론적으로 확립되고 실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원가관리(Cost Management), 일정관리(Time Management),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계약관리(Contract Administration), 안전관리(Safety), 지속가능관리(Sustainabilit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 관리 업무별로 세분화된 업무수행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이나 해외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CM업무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및 관리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건설사업관리(CM)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건설사업관리(CM) 기술인 전문성 및 경력관리 제도 개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3에서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구분하고 토목·건축·기계·교통 등 직무분야와 이에 따른 전문분야(건축의 경우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설계, 건축기계설비 등으로 토목의 경우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삭도 등)로 분류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로 정하고 있는데 당해 고시에 CM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CM은 사업시행 전반에 걸쳐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 CM 전문인력 관리체계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해외 사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CM 전문인력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계약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전문분야별 CM 전문인력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미군의 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 경기북부지역의 미2사단 등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방식이 적용되었고 국내외의 우수한 CM업체가 다수 참여하였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발주기관은 토목·건축·기계·전기·환경·화학·구

조·교통 등 엔지니어링 분야 이외에 총괄관리(Program Management), 사업관리(Projct Management), 예산분석(Budgeting/Program analysis), 설계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약관리, 원가관리, 노무관리(HR Management), 정보관리, 보건관리(industrial Hygienist), 소방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VE, 구매·조달관리 등의 관리분야에 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여 당시 입찰에 참여하던 국내 CM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CM업계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종합사업관리 참여는 글로벌 CM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국내 건설환경을 국제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전문관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등재할 인력관리 시스템이 없고 국내의 CM사업은 여전히 건축·토목·전기 등 공종별 인력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건설사업 시행 단계별로 사업성분석, 설계관리,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시공관리, 계약관리, 리스크관리 등 광범위한 CM 전문업무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표준화하여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양식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국내 CM사업 수행경험으로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 축적 가능한 환경 조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규정이 공사규모별, 공종별에 따라 적합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상주 및 비상주로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 철도 등 토목공사, 주택법 공사, 건축법 공사 등 발주사업에 CM 또는 감리 경력이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규모 및 공종에 따라 단순히 건설사업관리 경력을 반영한 획일적인 배치로는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글로벌 프로젝트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 배치 사례와 같이 원가관리, 공정관리, 클레임관리, 리스크관리, 설계관리, 시공관리 등 CM 업무 종류별로 인력을 배치하여 세분화된 업

무수행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별표 3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 능력세부 평가기준」 에 따른 CM용역입찰에서 참여기술인 평가시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관한 경력, 교육훈련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앞에서 언급한 CM 업무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면 국내에서 국제 시장에 맞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자연스럽게 CM의 전문분야별 경험 및 역량을 축적하게 되고 글로벌 CM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토양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정의에서 해외건설인력을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 머물며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는 많은 건설인력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경력확인서 발급이 국문만 제공되고 있어 해외에 경력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 번역 및 공증을 거쳐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과하게 투입되어 해외건설사업에 입찰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2에 별지 제18호 서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영문으로 병행하여 제공하고 아울러 국내 건설용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표준 영문 건설용어집을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경력관리 실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4. 해외 건설사업관리(CM)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인재정보(Overseas Construction HR Service)와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위크넷 해외건설인력풀 등 기존 해외건설 전문인력 DB는 국내의 기업과 개인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 분야의 구분이 크게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으로 나누고 그 하위에 토목의 경우 도로, 철도, CM, 감리 등으로, 건축의 경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계획, 실내건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분류체계로는 사용자가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CM 전문인력을 찾기

에 한계가 있다. CM은 기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시행단계 및 업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문성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건축분야의 초고층빌딩에 대한 공정관리전문가를 찾고자 하는 경우,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건축분야의 건축시공, 건축설계 등에 대한 CM경력이 몇 년 정도 되는지에 관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해당 인력이 CM에 대하여 어떤 전문분야에 어느 정도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기존 해외건설인력 DB 시스템들은 글로벌 CM 전문인력 관리와 양성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DB로서의 활용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해외건설인력 DB 시스템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해외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 DB는 해외 CM 사업을 통한 해외 기업 및 인력, 해외 발주자, 대상국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종 해외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는 등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DB 운영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더해 기존 해외건설인력 DB와 연계하여 한 시스템에서 정보를 등록하면 다른 시스템에서도 해당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각 시스템간의 동일 정보가 활용되도록 한다면 운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공사 상황 통보시에 계약의 체결·변경·완료 등 해외공사 실적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도 함께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 높게 한다면 개인이 경력관리를 위하여 해외사업 참여 실적 확인절차에 요구되는 양식작성, 발주기관 확인 등으로 인한 행정력 및 비용,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신뢰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최근 국내 건설수요의 감소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규모의 해외 시장 개척과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대부분의 관련 회사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

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관련 제도와 시스템들을 개선하여 CM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력정보관리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차별화된 다양한 분야의 해외 CM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